

Journal of Military History  
2019, No. 112, pp.129-170  
<https://doi.org/10.29212/mh.2019..112.4>  
Printed in the Republic of Korea

## 북한 군사전략의 역사적 고찰

이상택\*

1. 서 론
2. 이론적 배경
  - 가. 군사전략의 개념
  - 나. 군사전략의 구성요소
  - 다. 군사전략의 유형
  - 라. 연구의 분석틀
3. 시대별 북한의 군사전략
  - 가. 북한 군사전략 사상의 형성배경
  - 나. 김일성 시대의 군사전략
  - 다. 김정일 시대의 군사전략
  - 라. 김정은 시대의 군사전략
4. 북한의 군사전략에 대한 평가
  - 가. 군사목표의 불변성
  - 나. 군사전략개념의 공세성
  - 다. 군사자원의 공세성과 절대성
5. 결 론 : 한국의 대응방안

\* 원광대학교 군사학과 강사

## 1. 서 론

1948년 남북한이 각자 독자적으로 정부를 수립함으로써 한반도의 분단이 시작되었다. 이후 70여년을 이어오는 동안 1950년 북한이 한국전쟁을 도발한 것을 비롯하여 수많은 무력충돌 사태를 일으키면서 한반도의 긴장상태가 지속돼 왔다. 2000년 6월 김대중 대통령과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간의 제1차 남북정상회담으로 조성된 평화무드는 2006년 10월 북한의 제1차 핵실험으로 깨지게 되었다. 2007년 10월 노무현 대통령과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간의 제2차 남북정상회담으로 되살린 평화의 불씨도 북한이 2009년 5월 제2차 핵실험을 강행하면서 위태롭게 되었다.

북한의 핵포기를 이끌어내기 위해 미국을 중심으로 유엔안보리 결의안 채택과 대북특사 등 압박과 회유정책을 구사하였으나 북한의 핵개발 의지를 꺾지는 못했다. 오히려 김정은 집권이후부터 2019년 6월말까지 80여회의 미사일 시험발사와 2017년 9월 제6차 핵실험을 포함한 4차례의 추가 핵실험은 남북의 군사적 긴장상태를 최고조로 이끌었다. 그런데 2018년 들어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판문점과 평양에서 3차례의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였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도 싱가포르와 베트남 그리고 판문점에서 3차례의 미북정상회담을 가졌다. 이러한 여러 가지 국제정치 상황에 힘입어 남북간 화해분위기가 형성되고는 있지만 북한의 핵폐기는 가시권에 들어오지 않고 있다. 오히려 북한의 핵보유가 현실화되는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북한의 군사전략은 한국의 안보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핵심요인이기 때문에 그동안 군사전문가들의 매력적인 연구주제가 되어왔다. 반면에 대부분의 국가들이 자국의 군사전략을 정확하게 외부에 공표하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연구에는 한계가 있다. 그럼

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핵무기 보유가 기정사실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의 군사전략에 대해 관심을 가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북한의 군사전략에 대한 기존 연구자들의 논의결과는 다음과 같다. 『2018 국방백서』는 북한이 기습전, 배합전, 속전속결전을 중심으로 하는 군사전략을 채택했다고 주장한다.<sup>1)</sup> 김기호는 북한의 군사전략을 핵무기에 의한 대량파괴 및 조기 전쟁종결 전략과 일거에 대규모 선제공격 및 속전속결 전략 그리고 다양한 비대칭전략 및 배합전략으로 보았다.<sup>2)</sup> 남만권, 김현기, 장명순 등은 총력전, 정규전·비정규전의 배합, 기습에 의한 선제공격 및 속전속결 위주의 속도전 전략이라고 주장한다.<sup>3)</sup> 특히 남만권은 군사전략의 주목표를 북한정권의 통제하에 통일하는 것으로 보았으며, 장명순은 군사전략 목표를 적 유생역량의 섬멸, 전국토의 동시전장화, 수도권 조기석권 내지 무력화, 전국토의 조기점령으로 보았고, 김현기는 군사전략 목표를 북한의 체제목표인 남조선 해방에 기여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박용환은 북한이 핵개발 이전에는 선제공격전략, 배합전략, 속전속결전략을, 핵개발 이후에는 대량파괴전략, 속전속결전략, 사이버전략을 채택했다고 보았다.<sup>4)</sup> 전호환과 김열수·김경규는 정규전과 비정규전의 배합전략, 대규모 기습전략, 속전속결전략이라고 주장한다.<sup>5)</sup> 특히 김열수·김경규는 군사전략의 기본목표를 대남 적화

1) 국방부, 『2018 국방백서』, 국방부, 2018, 21쪽.

2) 김기호, 『김정일 최고사령관 시기 군사전략의 변화』, 『국방연구』 제57권 2호,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2014, 27-52쪽.

3) 남만권, 『핵무장 전후 북한의 대남 군사전략 비교』, 『군사학연구』 제5호, 대전대학교 군사연구원, 2007, 173-199쪽.; 김현기, 『북한의 군사전략과 군사력』, 『전략논단』 제11호, 해병대전략연구소, 2010, 176-193쪽.; 장명순, 『북한군사연구』, 서울: 팔복원, 1999, 158-163쪽.

4) 박용환, 『북한의 선군시대 군사전략에 관한 연구: '선군군사전략'의 형성』, 『국방정책연구』 제28권 1호, 한국국방연구원, 2012, 189-218쪽.

5) 전호환, 『북한 핵무기 보유시 군사전략 변화 가능성과 전망』, 『군사논단』 제52호, 한국군사학회, 2007, 44-65쪽.; 김열수·김경규, 『남북한 군사전략 비교와 합의』, 『신아세아』 제22권 2호, 신아시아연구소, 2015, 10-37쪽.

통일로 파악하고 있다. 김태현은 대담한 전격전, 계산된 제한전, 유연한 핵 배합전으로 보았다.<sup>6)</sup> 지효근은 냉전기에는 기습전, 배합전, 속도전을 요체로 한 군사전략이며, 탈냉전기에는 대량살상전략, 공세적 위협전략이라고 주장한다.<sup>7)</sup> 이 연구자들의 대부분이 북한의 군사전략을 기습전략, 속전속결(속도전)전략, 배합전략 등으로 보고 있다. 군사전략은 군사목표, 군사전략개념, 군사자원의 3요소가 유기적으로 조합되어 구성되므로 상호간의 관계성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럼에도 대부분의 연구자들이 군사전략개념에만 주안을 두고 분석하는 경향이 있어 북한 군사전략의 실체를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 연구는 “북한정권 수립이후 최고지도자가 김일성 → 김정일 → 김정은으로 3번이나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남도발이 끊이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하는 의문점에서 출발하였다. 북한이 대남도발을 멈추지 않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다. 그 중에서도 북한의 군사(軍事)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군사전략적 측면에서의 원인을 밝히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연구의 방향은 북한의 역사에서 시대별로 북한이 선택한 군사전략이 무엇인지를 고찰하고, 이를 토대로 한국의 대응방안을 모색하는데 있다. 연구의 범위는 다양한 군사전략의 분야 중에서 특히 북한이 전쟁도발시 한국의 생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방위전략’에 중점을 두고 논의할 것이다. 또한 군사전략의 구성요소인 군사목표, 군사전략개념, 군사자원의 관계성에 초점을 두고 연구를 진행할 것이다.

6) 김태현, 『북한의 공세적 군사전략 : 지속과 변화』, 『국방정책연구』 제33권 1호, 한국국방연구원, 2017, 131-170쪽.

7) 지효근, 『북한의 군사전략과 무기체계 변화』, 『동서연구』 제18권 2호, 동서문제연구원, 2006, 33-57쪽.

## 2. 이론적 배경

### 가. 군사전략의 개념

클라우제비츠(Karl von Clausewitz)는 전략의 개념을 “전쟁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서의 전투의 전개”로 정의하였고, 리델 하트(B. H. Liddell Hart)는 “전시에 정치적 목표의 달성을 위해 군사적 수단을 분배하고 적용하는 기술”로 인식하였다.<sup>8)</sup> 콜린 그레이(Colin S. Gray)는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군사력 또는 군사적 위협의 사용”으로 정의하였다.<sup>9)</sup> 이 군사전략가들의 공통점은 전략을 순수한 군사력의 사용이라는 협의의 전쟁개념으로 정의하고 있다. 반면에 콜린스(John M. Collins)는 “전평시를 막론하고 국가 이익과 국가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국가의 모든 힘을 결합시키는 기술”로 정의하였고, 와일리(J. C. Wylie)는 “어떤 목적과 그 목적의 달성을 위해 강구되는 제반수단과 방법을 포함한 하나의 행정계획”으로 인식함으로써 전략을 군사력 사용 이외의 범위로 확장시켰다.<sup>10)</sup> 전쟁과 전략의 논리는 물질적 진보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으로 인간의 본성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시공을 초월하여 보편적으로 적용됨을 알 수 있다.

오스굿(Robert E. Osgood)은 군사전략을 “다양한 수단을 이용하여 대외정책의 효과적인 지원을 위해 국력의 경제적·외교적·심리적 수단과 더불어 전쟁수행을 위한 전평시의 활동은 물론이고, 외교정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무력의 전반적인 사용계획”으로 폭

8) Julian Lider, *Military Theory: Concept, Structure, Problems*(Aldershot, England: Gower Pub., 1983), pp.192-193.

9) Colin S. Gray, *Modern Strategy*(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99), p.17.

10) John Garnett, “Strategic Studies and It’s Assumption,” in John Baylis, et. al(eds.), *Contemporary Strategy and Policies*(New York Holms & Meier Pub., 1976), pp.4-5.; 국방대학원, 『안전보장이론』, 국방대학원, 1991, 399쪽.

넓게 인식하였다.<sup>11)</sup> 미국 합동참모본부는 군사전략을 “국가정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군사력과 군사적 위협을 운용하는 술(art) 및 과학(science)”으로 정의하였으며, 한국 국방부는 “국가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군사적인 수단을 효과적으로 준비하고 계획하고 운용하는 방책”으로 정의하고 있다.<sup>12)</sup> 북한은 군사전략을 “전쟁의 전체 국면이나 일정한 전역에서의 무력의 배치, 전투의 조직·진행 등에 대한 전쟁 전반을 영도하는 작전방침”으로 정의하고 있다.<sup>13)</sup> 한국과 북한의 군사전략에 대한 인식의 차이점은 북한이 군사력 건설을 군사전략에서 제외시키고 있다는 사실이다. 결론적으로 군사전략이란 비군사적인 분야와의 상호작용 속에서 국가이익과 국가목표 달성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군사적 수단을 조성 및 운용하기 위한 군사계획이자 행동방책인 것이다.

#### 나. 군사전략의 구성요소

군사전략은 “무엇을 위해 어떤 수단을 어떻게 운용할 것인가?”하는 군사목표, 군사전략개념, 군사자원 등 3요소로 구성된다. 라이케(Arthur F. Lykke)는 군사전략의 개념을 통해 군사전략 구성요소의 상호관계를 <표 1>과 같이 등식으로 제시하였다.<sup>14)</sup>

<표 1> 라이케의 군사전략개념

군사전략 = 군사목표 + 군사전략개념 + 군사자원
-----------------------------

11) Robert E. Osgood, *The Entangling Alliance*(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62), p.5.

12) Joint Doctrine Note 1-18, *Strategy*(Washington D.C.: U.S. Department of Defense, 2018), p.I-7.; 국방대학교, 『안보관계용어집』, 국방대학교, 2010, 88쪽.

13) 남만권, 앞의 논문, 180쪽.

14) John P. Steward and Arther F. Lykke, Jr., *Military Strategy: Theory and Application*(Carlisle Barracks, PA: U.S. Army War College, 1982), p.311.

군사목표는 군사능력 및 자원을 투입하여 수행해야 할 특정임무 또는 과업이다. 리텔하트는 군사전략의 목표에 대하여 “군사목표는 정치목적의 수단인 것이다. 그러므로 군사목표는 정치목표에 의해 통제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sup>15)</sup> 군사전략개념은 운용개념으로서 군사적 상황을 예측한 결과 채택된 군사행동 방안이다.<sup>16)</sup> 군사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가능성 있는 방안 중에서 선택된 가장 유효한 군사적 방책을 말한다. 예를 들면 억제, 공세, 수세-공세, 수세 등이 있다. 군사자원은 군사목표를 달성하는데 있어서 직·간접적으로 가용할 수 있는 제반 인원 및 물자를 말한다.<sup>17)</sup> 군사자원의 범위에는 군부대나 무기체계뿐만 아니라 동맹 및 우방국의 상호협조와 잠재적인 능력도 중요한 비가시적인 군사자원으로 고려해야 한다.

#### 다. 군사전략의 유형

군사전략은 군사목표, 군사전략개념, 군사자원 등 3요소로 구성되지만 군사전략의 유형은 전쟁을 수행할 때 군사전략개념을 공세 또는 수세 중 어떤 것을 위주로 할 것인가에 따라 결정된다. 본래 공세 또는 수세라는 형태는 전략적인 맥락에서 구분되는 것이며, 작전적 또는 전술적 차원에서는 상호보완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프랑스의 전쟁영웅 나폴레옹(Napoléon Bonaparte)은 “전쟁술의 전체적인 구성은 공격과 방어로 이루어진다.”고 언급했으며, 마오쩌둥(毛澤東)도 “공격과 방어는 동전의 앞뒷면과 같다.”고 주장하였다. 풀러(J. F. C. Fuller)는 “방어는 공격의 기반이며, 전쟁술은 공방

15) B. H. Liddell Hart, *Strategy: The Indirect Approach*(New York: Praeger Pub., 1975), p.351.

16) JCS Pub., *Dictionary and Associated Terms*(Washington D.C.: U.S. Department of Defense, I, 1979), p.328.

17) 국방대학원, 『군사전략(이론과 적용)』, 국방대학원, 1984, 89쪽.

간의 밀접한 상호작용에 의존한다.”고 말했다. 이처럼 공방의 구분이 때로는 필요하지만 구분하기는 어렵다. 현재 각국의 군사전략에 대한 접근은 국가가 처한 상황과 여건에 따라 선택지가 다르게 나타난다.

먼저 전쟁 자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선택하는 억제전략이 있다. 억제는 위협을 수단으로 삼아 설득의 방법으로 상대방의 행동을 규제하려는 것이다. 억제전략의 유형에는 잠재적 침략국의 특정 전략목적 달성을 거부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함으로써 침략을 포기하게 하는 거부적 억제전략과 잠재적 침략국의 침략행동에 대해 견딜 수 없을 정도의 제재를 가할 것이라는 위협에 의해 공포심을 유발시켜 전쟁을 억제하는 제재적 억제전략이 있다.<sup>18)</sup>

다음으로 국가가 억제에 실패했을 경우에 국가의 외형적 실체 보존을 전제로 예상되는 손실과 위협을 감소시키기 위해 전쟁을 수행할 때 채택하는 전략을 방위전략이라고 한다. 방위전략의 유형은 전략태세, 전쟁기간, 전쟁방식 등에 따라 다양하다. 방위전략은 국가의 국력과 정책목표, 국제정치 상황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일반적으로 방위전략은 사활적 국가이익(vital national interest)이 걸려있는 국가생존의 최후수단으로 반드시 관철시켜야 하며 공세전략, 수세-공세전략, 수세전략 등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첨단무기체계를 기반으로 수행되는 현대전에서는 공격이 주는 이점은 대단히 크다. 공세전략은 적의 침공정후가 명확한 상황에서 적의 침공 직전에 제한된 목표에 선제공격을 실시하거나 미래의 위협을 우려하여 현재 전쟁의도가 없는 상대방에 대해 미리 공격을 수행하는 전략이다. 수세-공세전략은 상대방의 공격을 전제로 전략적 수세를 취하다가 필요시 공세로 이전한다는 전략개념이다. 수세-공세전략을 채택하더라도 전장의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해서는 공세적인

18) 이영민, 『군사전략』, 서울 : 송산출판사, 1991, 533쪽.

작전을 수행해야 한다. 수세란 ‘정복’이라는 적극적인 활동보다는 ‘보존’이라는 소극적인 활동을 통해서 전쟁의 정치목적에 관철시키려는 전략적 차원에서의 구상이다.<sup>19)</sup> 수세전략은 개전시점에서는 적의 기습공격을 허용하지만 이후의 군사작전은 작전술 이하 차원에서 전장상황에 따라 공격과 방어가 전개된다.

## 라. 연구의 분석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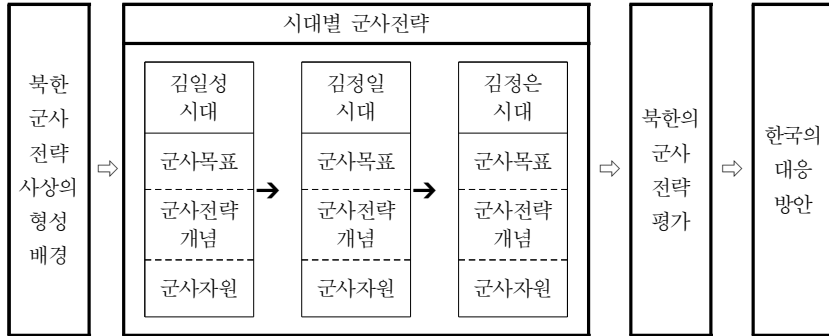
일반적으로 군사전략을 군사전략개념과 동일하게 일컫는 경우가 있다. 이는 군사전략의 구성요소 중에 군사전략개념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빚어지는 현상이다. 군사전략은 군사목표, 군사전략개념, 군사자원 등 3요소로 구성된다. 이러한 개념을 이 연구의 방법론에도 적용할 것이다.

군사전략의 형성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군사전략 사상은 군사전략 상의 문제에 대해 내면적으로 형성된 군사적 인식체계로서 군사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군사력을 준비하고 운용하는 통일된 견해나 관념체계를 일컫는다.<sup>20)</sup> 군사전략 사상이 군사전략 선택에 미치는 영향력이 지대하기 때문에 이 연구에서는 북한의 군사전략 사상의 형성배경에 대해 먼저 알아보고, 북한정권이 시대별로 선택한 군사전략에 대해 분석 및 평가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북한정권이 시대별로 선택한 군사전략에 대한 평가결과를 토대로 한국의 대응방안을 제시할 것이다. 이 연구의 분석틀을 <그림 1>에 제시하였다.

19) 이영민, 앞의 책, 534-535쪽.

20) 육군본부, 『한국군사사상』, 육군본부, 1992, 18쪽.

<그림 1> 연구의 분석틀



### 3. 시대별 북한의 군사전략

군사전략은 국가군사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가용한 군사력을 운용하는 전략이다. 군사전략의 궁극적 목적은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는 것으로 역제가 실패할 경우에 군사력을 사용하기 위한 방안이다. 따라서 군사전략은 평화상태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쟁이 발발할 경우에 정치적으로 유리한 조건하에 평화를 회복하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sup>21)</sup> 군사전략은 무력을 사용하는 국가전략의 한 부분이며 군사목표는 항상 국가목표에 지향되어야 한다. 또한 군사전략의 성공여부가 국가의 존망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국가전략의 하위전략 중 여타의 전략에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중요하다. 북한이 시대별로 선택해 오고 있는 군사전략을 <표 2>에 제시하였다.

21) Jeffrey Record, "Revising U.S. Military Strategy: Tailoring Ends and Means," George Edward Thibault, ed., *Dimensions of Military Strategy* (Washington D.C.: NDU Press, 1987), p.55.

&lt;표 2&gt; 시대별 북한의 군사전략

구 분	김일성 시대 (1948~1994)	김정일 시대 (1994~2011)	김정은 시대 (2011~현재)
국가목표	한반도의 공산화	한반도의 주체사상화와 공산화	한반도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
군사목표	한반도 전역 점령	한반도 전역 점령	한반도 전역 점령
군사전략개념	공세전략	공세전략	공세전략
군사자원	재래식 무기, 화생무기, 미사일	재래식 무기, 화생무기, 미사일	재래식 무기, 화생무기, 미사일, 핵무기

※ 출처 : 『1946 조선로동당 강령』 ; 『1948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강』 ; 『1980 조선로동당 규약』 ; 『2010 조선로동당 규약』 ; 『2016 조선로동당 규약』 ; 정보사령부, 『북한군 군사사상』, 정보사령부, 2007; 백종천, 『북한의 군사력과 군사전략』, 『통산권연구논총』 제2권 1호, 한국사회주의체제연구협의회, 1990; 김기호, 앞의 논문; 한국국방연구원, 『2016 동북아 군사력과 전략동향』, 서울 : 한국국방연구원, 2016 등을 참고하여 재구성함.

## 가. 북한 군사전략 사상의 형성배경

사상이란 “특정 사물에 대한 사유작용을 통해 일정한 체계와 형식이 갖추어진 인식내용”을 말한다.<sup>22)</sup> 이러한 사상은 각 시대의 개인·사회·민족인류 속에서 잠재하여 그 시대의 현실을 움직이는 원동력이 되며, 정치·경제·사회·문화 일반을 지도하고 때에 따라서는 변혁까지도 일으킨다.<sup>23)</sup> 이처럼 사상이 국가체계 전반에 미치는 영향력은 막강하다. 한 국가나 민족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전쟁이라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전쟁에 관한 명확한 인식과 이러한 인식에 바탕을 둔 군사력 건설 및 운용의 지표가 될 군사사상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sup>24)</sup> 군사사상은 “군사문제 전반에 걸쳐 내면적으로 형성된 군사적 인식체계를 말하는 것으로서 국가목표 달성을 위해 어떻게 무력을 준비하고 사

22) 허옥, 『세계철학대사전』, 서울 : 성균서관, 1977, 479쪽.

23) 철학사전 편찬위원회, 『철학사전』, 서울 : 도서출판 중원문화, 1987, 430쪽.

24) 육군본부, 앞의 책, 9쪽.

용할 것인가에 대한 통일된 견해나 관념체계”라고 할 수 있다.<sup>25)</sup> 따라서 북한의 군사전략을 정확하게 분석하기 위해서는 김일성의 군사관련 행적과 현대전의 교훈 등 먼저 군사사상의 형성배경에 대해 살펴 볼 필요가 있다.

김일성은 1912년 4월 15일 평양에서 태어나 7세 때 부모를 따라 중국으로 이주하여 중국공산당 예하부대에 소속되어 항일투쟁에 가담하였다. 1941년부터 1945년까지는 일본군의 대토벌작전에 쫓겨 소련으로 도주하여 소련군 제88특수저격여단에 근무한 경력을 가지고 해방이 되자 1945년 9월 18일에 소련군 장교로 원산항을 통해 입북하였다. 1948년 2월 8일에 조선인민군을 창설하고 1948년 9월 9일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수상에 취임함으로써 권력을 장악하게 된다.<sup>26)</sup> 김일성은 소련의 전폭적인 지원과 중국의 묵인 하에 한국전쟁을 일으켜 한반도의 공산화를 시도하였다. 이러한 김일성의 군사경력을 통해서 중국공산당과 소련공산당의 영향을 받았을 것이라는 사실뿐만 아니라 항일유격전 경험과 한국전쟁을 주도했던 정규전 경험 또한 군사사상 형성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추론이 가능하다.

김일성은 “마르크스-레닌주의의 원칙을 창조적으로 적용한다.”면서 혁명의 이름을 빌어 완전한 자기독재체제를 북한땅에 형성하고 이른바 ‘김일성사상,’ ‘김일성주의’를 주장하기에 이르렀다. 1960년대 전반까지만 해도 그가 전개한 의식내용은 대부분 소련의 것, 그 가운데에서도 스탈린 병학(兵學)에 관한 것을 부분적으로 본 딴 흔적이 많다. 따라서 마르크스-레닌주의적 사상을 내걸었고 거기에 마오쩌둥의 군사사상을 덧씌우기도 하였다.<sup>27)</sup> “인간에 의한 인간의

25) 육군본부, 앞의 책, 18쪽.

26) 와다 하루끼(和田春樹) 지음, 이종석 옮김, 『김일성과 만주항일전쟁』, 서울: 창작과 비평사, 1992, 266-292쪽.; 권양주, 『북한 군사 이해』, 서울: 한국국방연구원, 2010, 15-35쪽.

착취가 존재하는 한, 사회주의와 자본주의라는 적대관계가 존재하는 한, 결코 전쟁은 불가피하다.”라는 것이 마르크스-레닌사상의 첫 대목이다.<sup>28)</sup> 이를 김일성이 적극 수용하여 한반도의 사회주의화, 즉 공산화가 달성되어야 한반도에서 전쟁을 멈출 수 있다는 논리로 강화시켜 나갔다.

중국 마오쩌둥의 군사사상 또한 마르크스-레닌주의 전쟁관에 영향을 받아 기존의 정치질서를 타파하고 변혁시키기 위해 무력투쟁을 지향하였다. 마오쩌둥은 현저하게 열세한 중국공산당군을 이끌고 국민당군과의 무력투쟁을 통해 중국을 통일하였다. 김일성도 마오쩌둥이 실행에 옮겨 성공했던 중국의 통일방식과 같은 방식으로 한반도의 무력 적화통일을 꿈꾸었던 것이다.

## 나. 김일성 시대의 군사전략

### 1) 군사목표

북한에서 조선노동당의 당대회는 당의 사업결정, 당의 강령 및 규약 제정, 당의 노선과 정책·전략·전술의 기본문제 결정, 당 총비서 추대 등을 진행하는 당과 국가의 최고 권력기관이다. 북한은 1946년 8월 북조선노동당<sup>29)</sup> 창립대회를 열고 노동당 강령과 규약을 제정하였다. 이후 1948년 제2차 당대회 때부터 매년 당대회 때마다 노동당 규약을 개정해 오고 있다. 북한에서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와는 달리 수령의 교시 > 노동당 규약 > 사회주의 헌법 > 개별 법규 순으로 영향력이 발휘된다. 조선노동당 규약이 차지하는 위상은 김일성의 교시 다음으로 문서화된 법체계에서는 최고의 권위를 갖는다.

27) 윤중현, 『김일성의 군사사상』, 『북한군사론』, 서울: 북한연구소, 1978, 177-178쪽.

28) 윤중현, 위의 책, 179쪽.

29) 이후 북한정권이 수립되고 1949년 6월 30일에 당시 남한에 있었던 남조선노동당과 통합하여 조선노동당이 발족되었다.

1946년 북조선노동당 창립대회에서 최초 제정된 노동당 강령과 규약에는 “조선근로대중의 이익을 대표하며 부강한 민주주의 독립국가 건설을 목적”으로 내세웠을 뿐 ‘한반도의 공산화’와 같은 내용은 반영되지 않았다. 1956년 4월 개최된 조선노동당 제3차 대회에서 마르크스-레닌주의가 공식적으로 채택되었으며, ‘전국적 범위에서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이라는 당면목표와 ‘공산주의 사회건설’이라는 최종목표가 제시되었다.<sup>30)</sup> 북한은 이 기조를 계속 유지하다가 1970년 11월 개최된 조선노동당 제5차 대회에서 당의 당면목표와 최종목표는 그대로 유지한 채, 지도이념으로 마르크스-레닌주의와 함께 김일성의 주체사상을 추가하였다. 1980년 10월 개최된 조선노동당 제6차 대회에서는 마르크스-레닌주의가 자취를 감추고 주체사상이 유일한 지도이념으로 선언되었다. 조선노동당이 추구해 나가야 할 목표로서 “전국적 범위에서의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혁명 및 북반부의 사회주의 완전승리”라는 당면목표와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 및 공산주의사회 건설”이라는 최종목표가 채택되었다. 또한 김정일을 정치국과 비서국 당중앙군사위원회에 모두 추대함으로써 김일성의 후계자로 김정일을 공식화했다.<sup>31)</sup>

북한은 1956년 4월 개최된 조선노동당 제3차 대회 때부터 채택된 조선노동당 규약 전문에 ‘한반도의 공산화’를 명시함으로써 국가목표가 한반도의 공산화에 있음을 공식적으로 천명하였다. 군사목표는 국가목표를 달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선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북한은 이때부터 ‘한반도 전역 점령’을 군사목표로 공식화한 것으로 판단된다.

30) 『1946 조선로동당 강령』 ; 『1946 조선로동당 규약』 ; 『1956 조선로동당 규약』 .

31) 이승열, 『조선노동당 제7차 대회의 내용과 특징』, 『이슈와 논점』, 국회입법조사처, 2016, 2쪽.; 『1970 조선로동당 규약』 ; 『1980 조선로동당 규약』 .

## 2) 군사전략개념

김일성은 자신이 선택한 한반도 전역 점령이라는 군사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군사전략개념으로 당연히 ‘공세전략’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단지 방어나 수세적인 전략태세로는 한반도 전역을 점령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김일성이 1940년대 초반 소련군 제88특수저격여단에 근무했던 경력과 북한이 해방 이후 소련식 군사체제를 모방하여 조선인민군을 창건하고 소련의 지원 하에 소련이 기획한 전쟁계획을 가지고 한국전쟁을 도발한 사실은 군사 전반에서 북한이 소련군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sup>32)</sup> 김일성 시대에 북한이 최초로 선택한 공세전략은 1936년 소련의 육군차관 투하체프스키(M. N. Tukhachevsky) 원수가 집필한 『소련군 야외교령』에 제시된 ‘속공기동공세작전’과 ‘포위섬멸전략’을 모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김일성의 전략계획은 “전 무력을 다하여 적의 군대에 반격을 가하고 나아가 적국영토 내에 침습(侵襲)해야 하며, 섬멸전의 수행을 원칙으로 하여 완전히 적국을 복멸(覆滅)한다.”는 방침에 입각하고 있다. 또한 전투체제의 편성방법은 “보병·포병·전차 등을 삼위일체로 조합한 전형적인 기동작전”이었다. 이는 『소련군 야외교령』에서 제시된 적군의 전투행위, 기습, 각 병종의 운용, 포위 등의 작전수행 방법과 매우 유사하다.<sup>33)</sup> 1936년 당시 소련군이 채택한 전략술은 근대적 물량에 의존하는 철저한 공세전술이라는 특징이 있으며, 이를 북한군이 철저하게 모방하여 차질없이 준비한 결과 1950년 6월 25일에 오늘날 한국전쟁으로 일컬어지는 남침전쟁을 감행할 수 있었던 것이다. 한국전쟁은 북한군이 공세전략을 채택하여 최초로 수행한 전면전쟁이었다. 북한군은 기습공격으로 한국전쟁

32) 최영, 『북한의 군사전략』, 『북한군사론』, 서울: 북한연구소, 1978, 245-246쪽.

33) 최영, 앞의 책, 246-248쪽.

을 시작되어 3일만에 수도 서울을 함락시키고 단기간에 낙동강까지 진격하는 전과를 올렸다.

### 3) 군사자원

북한은 그들이 선택한 군사목표인 ‘한반도 전역 점령’을 달성하기 위해 선택한 군사전략개념인 ‘공세전략’을 구현하기 위한 군사자원의 준비에 매진하면서 현대전의 교훈도 받아들여 나름대로 군사전략에 반영하였다. 북한은 1962년 10월 14일 소련이 쿠바에 전략미사일을 배치하려다가 미국에 적발되어 해상봉쇄를 당하자 포기하고 철수한 쿠바 미사일사태를 계기로 소련의 핵우산 보호에 대한 신뢰도에 의문을 품게 되었다.<sup>34)</sup> 이에 북한은 1962년 12월에 개최된 조선노동당 제4기 5차 전원회의에서 군사력 강화에 관한 문제를 다루면서 “군사력을 더욱 강화할 수 있도록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결부시키는 것은 정세변화와 관련하여 집행한 우리당의 기본적인 전략지침”이라고 규정하고 회의의 결과로 ‘4대 군사노선’을 채택하였다.<sup>35)</sup> 이른바 ① 전인민의 무장화, ② 전지역의 요새화, ③ 전군의 간부화, ④ 전군의 현대화 등 ‘국방에서의 자위’ 원칙을 표방하였는데, 이는 군사전략의 공세적 측면에 있어서도 일정한 함축성을 가지고 있다. 즉 국제정세의 변화, 특히 미중소(美中蘇)의 관계가 호전되어 한국과 1:1의 전쟁을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되었을 경우에는 중국 또는 소련의 지원 혹은 동의를 받지 않고도 북한이 독자적으로 남침전쟁을 도발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독단적인 전략계획이 이 원칙에 숨어있다는 것이다.<sup>36)</sup>

34) 이근욱, 『쿠바 미사일 위기 : 냉전 기간 가장 위험한 순간』, 서울 : 서강대학교출판부, 2013, 150-152쪽.

35) 최영, 『북한정치권력의 변천과정』, 『북한』, 서울 : 북한연구소, 1972년 8월호, 134쪽.

36) 이치카와 마사키(市川正明), 『中ソ對立と北傀の軍事關係』, 『中ソ對立とアジア諸國』, 上卷, 東京 : 日本國際問題研究所, 1969, 118-120쪽.

북한은 베트남전이 한창이던 1969년 1월 인민군 군단장급 이상 지휘관들과 정치군관들이 모인 인민군당 제4기 4차 전원회의를 개최하였다. 이 자리에서 김일성은 산악전, 공수낙하훈련, 폭격훈련을 비롯하여 어뢰공격, 지상목표사격 등 공격훈련에 중점을 두도록 지시하였다. 또한 FROG-5-FROG-7(미사일), MIG-21-SU-7(전투기), 코마(KOMAR)급-오사(OSA)급 유도탄경비정 등 기습과 공격작전에 유리한 장비들을 도입하는 한편 재래식 무기의 양산으로 장비를 전반적으로 현대화하도록 지시함에 따라 1960년대 말 이후로 북한의 군사력 증강은 일관되게 추진되었다.<sup>37)</sup>

김일성은 1973년 10월 6일 제4차 중동전쟁이 발발하여 이집트 제2군단이 시나이반도에 교두보 구축에 성공한 때에 맞추어 10월 8일부터 12일까지 군사지휘관 및 정치군관 2만여 명을 평양체육관에 소집하고 북한의 군사전략인 공세전략을 완벽하게 수행할 수 있는 군사적 준비태세가 완료되었음을 선언하였다. 또한 이집트가 초반에 구축한 교두보를 전과확대의 발판으로 삼지 않고 계속 강화하면서 휴전협상을 시도한 전례에서 ‘선 군사점령 후 정치협상’ 방식의 교훈을 얻었다. 북한은 이 같은 방식을 보장해 줄 군사력으로 경보병 부대와 특수전 전력을 강화시키는 계기로 삼았다.

김일성은 1980년 10월 제6차 당대회 총화보고에서도 “자위적 군사노선을 관철함으로써 강력한 국방력을 마련해 놓았다.”고 선언하고, 1980년대 인민군의 당면과업으로 ① 군대 내의 유일사상체계 확립, ② 전투정치훈련의 강화, ③ 군사기술 수준의 향상, ④ 부대의 전투력과 전투준비 강화 등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1980년부터는 공격과 침투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상륙단정을 꾸준히 증가시키면서 화학무기 도입, 기계화군단 창설 등을 추진하였다. 1985년부터는 MIG-23(전투기)의 신규도입과 조기전력화, AN-2(수송기)·MI-2(헬

37) 극동문제연구소, 『북한전서』 중권, 서울 : 극동문제연구소, 1974, 32쪽.

기)·함정·전차의 증강, 휴즈헬기 무장화, 그리고 후방에 독립적으로 배치시켰던 기갑부대를 3~4개의 기갑부대로 집약시켜 전방에 배치시켰다. 특히 1985년을 전후로 진행된 대폭적인 군사력 증강은 질과 양에서 과거와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획기적이었다.<sup>38)</sup>

1991년 1월 17일 북한이 ‘만(灣)전쟁’이라고 칭하는 걸프전이 발발하여 2월 28일까지 43일간에 걸쳐 진행되었다. 38일간의 공중공격과 5일간에 걸친 지상공격 작전으로 최신무기가 총 동원돼 수행된 현대전의 모델이었다. 김일성은 걸프전이 종료되고 나서 인민무력부 예하에 만전쟁연구소를 세워 걸프전의 교훈을 분석하고 전쟁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독려했다.<sup>39)</sup> 이처럼 김일성 시대에는 김일성 자신의 군사경력과 『소련군 야외교령』, 한국전쟁의 경험, 현대전의 교훈 등을 그들만의 방식으로 해석하고 반영하여 군사전략을 발전시켜 왔던 것이다.

## 다. 김정일 시대의 군사전략

### 1) 군사목표

김정일 정권이 들어선 후에는 당대회가 한 차례도 열리지 못했다. 대내적으로는 1994년 김일성 사망 이후부터 경제정책 실패로 인한 고난의 행군기를 맞아 북한의 경제가 돌이킬 수 없는 파탄지경에 이르게 된다. 대외적으로는 1989년초 폴란드와 헝가리에서 시작한 동유럽 혁명이 공산주의 종주국인 소련마저도 붕괴시키고 1992년 알바니아에서 막을 내리게 되었다. 이로 인한 동유럽 사회주의 동맹국들의 자유화 선택과 북한과의 동맹관계 단절, 그리고 김

38) 백중천, 앞의 논문, 65-66쪽; 서유석, 『북한의 군사정책 및 군사전략변화와 서해간 장상대 전망』, 통일부 용역 최종보고서, 2010, 5-6쪽.

39) 정보사령부, 앞의 책, 33쪽.

일성이 생전에 인민들에게 멀지 않은 앞날에 ‘이밥(쌀밥)에 고깃국’을 먹이겠다고 약속한 바를 지키지 못할 경제상황이라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당대회를 개최할 수가 없었던 것이다.

대신에 2010년 9월 28일 개최된 당대표자회에서 김정일의 후계자로 김정은을 지정하여 김일성 → 김정일 → 김정은으로 이어지는 3대 세습체제를 공식화했다.<sup>40)</sup> 이때 개정된 조선노동당 규약에 의하면 “당의 당면목적은 공화국북반부에서 사회주의 강성대국을 건설하며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해방민주주의 혁명의 과업을 수행하는데 있으며 최종목적은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여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는 것으로 제시함으로써 기존의 노동당 규약에 언급되었던 ‘공산주의사회 건설’이라는 직접적인 표현은 빠졌지만 공산주의사회를 건설하겠다는 목표를 포기한 것은 아니다.<sup>41)</sup> 북한 사회과학원에서 발간한 『철학사전』에 “공산주의사회는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 할 때 성과적으로 이루어진다. 공산주의사회는 주체사상의 요구에 맞게 사람과 사회가 개조됨으로써 인민대중의 자주성이 완전히 실현되는 사회”라고 명시되어 있다.<sup>42)</sup> 북한에서 발간된 또 다른 저서 『위대한 주체사상총서』에도 “공산주의사회는 근로 인민대중의 자주성이 완전히 실현되는 사회, 인류사회 발전의 가장 높은 단계를 이루는 사회”라고 정의되어 있는 등 여전히 북한의 대남 적화통일 노선이 불변임을 알 수 있다.<sup>43)</sup>

북한이 2009년 4월에 전면 개정한 사회주의헌법 제3조에는 ‘주체사상’ 외에 ‘선군사상’을 새로운 지도지침으로 명기하였다.<sup>44)</sup> 당의 지도사상으로 주체사상을 고수하고, 당의 기본 정치방식으로 선군정

40) 장용훈, 「북매체, ‘후계자는 김정은’ 사실상 확인」, 『연합뉴스』, 2011년 6월 27일.

41) 『2010 조선로동당 규약』.

42) 사회과학원 철학연구소, 『철학사전』,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85, 62쪽.

43) 최철웅·김양선, 『위대한 주체사상총서』 제5권,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85, 3쪽.

44) 『2009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 사회주의헌법』.

치 노선을 새로 추가하면서 김정일 정권의 통치목표인 사회주의 강성대국 건설을 명시하고 있다. 선군정치는 군사선행의 원칙에서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군대를 혁명의 기둥으로 내세워 사회주의 위업전반을 밀고 나가는 영도방식이다.<sup>45)</sup> 결국 주체사상이 김일성의 혁명사상이라면 김정일은 김일성의 주체사상에 자신의 선군사상을 더해 새로운 정치철학으로 탄생시킨 것이다. 이런 점에서 김정일 시대의 군사목표도 김일성 시대와 동일하게 한반도 전역 점령, 즉 한반도의 적화통일에 있다는 것이 확실해 보인다.

## 2) 군사전략개념

북한은 김정일 시대에도 변함없이 그들의 군사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군사전략개념으로 ‘공세전략’을 선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는 북한이 한반도 전역 점령이라는 군사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불가피한 선택으로 여겨진다.

1999년 6월 15일 북한 경비정이 연평도 인근 북방한계선(NLL: Northern Limit Line)을 넘어오자 한국 해군 고속정과 초계함이 밀어내기 작전으로 대응하던 도중 북한 경비정과 어뢰정이 공격을 감행한 제1연평해전이 발발하였다. 2002년 6월 29일 한일 월드컵대회 기간 중에도 북한 경비정 2척이 연평도 인근 NLL을 넘어오자 한국 해군 고속정 4척이 경고방송으로 대응하던 도중 북한 경비정이 기습포격을 가하는 제2연평해전을 도발하였다. 북한은 김일성 시대부터 미사일 발사를 지속해 오고 있을 뿐만 아니라 2006년 10월 9일 제1차 핵실험, 2009년 5월 25일 제2차 핵실험을 실시함으로써 국제사회를 향해서도 도발을 감행하였다. 2009년 11월 10일에는 북한 경비정 1척이 대청도 인근 NLL을 침범하여 한국 해군 고속정이 대응하자 교전이 벌어진 대청해전을 도발하였다. 2010년 3월 26일에는 백령도 인

45) 『로동신문』, 1999년 6월 16일.

근 해상에서 한국 해군 초계함인 천안함이 북한 잠수함의 어뢰공격으로 침몰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그해 11월 23일에는 북한이 연평도에 포탄공격을 가하는 무력도발을 자행하였다.<sup>46)</sup>

이처럼 계속되는 북한의 도발은 우연이 아니라 철저히 계획된 것임을 알 수 있다. 김정일은 『로동신문』 2011년 신년공동사설에서 “인민군대의 정신은 백두의 공격정신이며 정의의 대응방식은 즉시적이고 무자비한 섬멸전이다.”라고 주장하면서 적극적인 공세전투를 벌일 것을 지시하였다.<sup>47)</sup> 북한이 사회주의 강성대국을 표방한 이면에는 자주국방을 실천하는 군사중시(軍事重視)의 군사강국이 달성되어야만 공세전략을 통해 한반도 전역을 점령함으로써 그들의 군사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속내가 깔려 있다.

한국은 1945년 8월 15일 해방과 더불어 완전한 통일국가를 이루지 못하고 남북으로 분단된 이후 한국전쟁을 비롯한 수많은 군사적 충돌이 발생하였다. 그런데 한국이 먼저 도발한 사례는 한 차례도 없었다. 이처럼 북한이 한국을 대상으로 끊임없이 도발을 일삼는 관성은 북한 군사전략개념의 공세성이 추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군사적 모험주의가 결합돼서 한반도의 공산화가 달성되기 전까지는 ‘뫼비우스의 띠(Möbius strip)’처럼 혼돈이 무한히 반복되는 굴레가 되고 있다.

### 3) 군사자원

북한은 그들의 군사전략개념인 공세전략을 차질없이 수행하기 위해 군사자원을 공격무기 위주의 무기체계 확충에 두고 추진하였다.

46) 제1연평해전에서 한국군 7명이 부상을 당했으며, 제2연평해전에서는 한국군 6명이 전사하고 17명이 부상을 당했다. 천안함 폭침사건에서는 한국군 46명이 사망하였고, 연평도 포격도발에서는 군인 2명과 민간인 2명이 사망하고 군인과 민간인 총 26명이 부상을 당하는 피해를 입었다.

47) 『로동신문』, 2011년 1월 1일.

1994년 김일성의 갑작스런 사망으로 김정일이 권력을 승계하자마자 곧바로 닥친 고난의 행군으로 대변되는 극심한 경제난은 북한의 전력변화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었으며, 이는 비대칭성의 강화로 나타났다. 그 뿐만 아니라 1989년부터 시작된 동구권 사회주의 국가들의 잇따른 붕괴로 인해 위기의식을 느낀 김정일은 북한체제를 지탱해 줄 버팀목으로 내세운 선군정치를 실현시켜 줄 상징물로는 핵무기가 절대적이라는 판단을 하게 되었다. 김정일의 핵무기 개발에 대한 집착이 2006년과 2009년 2차례에 걸친 핵실험과 장거리미사일 시험발사로 이끌었다. 미사일 개발은 김일성 시대인 1970년대부터 시작하여 1980년대 중반부터 자체 생산하여 실전배치 하였으며, 이후 지속적인 성능개량을 통해 사거리를 늘려나가고 있다. 북한은 1998년 8월 31일 장거리미사일(광명성 1호) 시험발사 이후, 이를 강성대국으로 진입하는 신호탄으로 의미를 부여하면서 대대적으로 선전하기 시작했다.<sup>48)</sup> 김정일 시대에는 핵개발에는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무기화 단계에는 미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2003년 3월 20일 발발한 이라크전쟁에서 연합군은 항공력과 미사일 그리고 전자전의 위력으로 전쟁개시 불과 26일만에 이라크군을 괴멸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북한은 김일성 시대부터 현대전의 교훈을 받아들이는데 적극성을 보여 왔다. 유사시 한미연합군의 최첨단 항공전력에 의해 북한군이 큰 피해를 볼 것을 우려한 나머지 군단단위의 대규모 포병과 기갑 및 기계화 부대를 사여단 규모로 개편하여 전방군단에 배속 및 추진배치 하였다. 또한 김정은 시대에만 전차 300대, 야포 2,750문, 잠수함 44대, 특수전 병력 10만명을 증강시켰으며, 도하장비도 3,000대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sup>49)</sup> 이는 북한이 김일성 시대에 이어 김정일 시대에도

48) 통일교육원, 『북한지식사전』, 통일교육원, 2016, 24쪽.

49) 김기호, 앞의 논문, 34-44쪽.

그들이 선택한 군사전략개념인 공세전략을 철저히 뒷받침하기 위한 방향으로 군사자원을 확충하고 있다는 증거이다. 김정일 시대 북한의 군사전략은 선군정치라는 큰 틀 속에서 김정일 체제의 생존과 노동당 규약에서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남한에 대한 적화통일을 달성하고자 하는 정치적 목적을 지향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 라. 김정은 시대의 군사전략

### 1) 군사목표

북한은 2012년 4월 6일 발표한 담화를 통해 “김일성-김정일주의는 주체의 사상, 이론, 방법의 전일적 체계이며 주체시대를 대표하는 위대한 혁명사상”이라고 밝혔다. 2012년 4월 제4차 노동당 대표자회에서 김정일을 ‘영원한 노동당 총비서’로 규정하는 결정서를 발표하면서 “김일성-김정일주의는 조선로동당의 영원한 지도사상”이라고 주장하였다.<sup>50)</sup> 김정은이 짧은 후계구축 기간으로 정치적 정통성이 부족한 상황에서 김정은 리더십의 이념적 기반을 제공하기 위해 김일성-김정일주의를 조선노동당의 지도이념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은 1980년 10월 치러진 조선노동당 제6차 대회 이후 36년 만인 2016년 5월 조선노동당 제7차 대회를 개최하였다. 여기서 북한이 ‘핵무기 보유’를 공식화하였을 뿐만 아니라 김정은은 ‘핵경제 병진노선’을 주문하였다.<sup>51)</sup> 이때 개정된 조선노동당 규약에 의하면 “당의 당면목적은 공화국북반부에서 사회주의 강성국가를 건설하며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의 과업을 수행하는데 있으며 최종목적은 온 사회를 김일성-김정일주의화하여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는데 있다.”고 밝혔다.<sup>52)</sup> 북한이 조선노동당의 지도이

50) 통일교육원, 앞의 책, 135-138쪽.

51) 이승열, 앞의 논문, 2-3쪽.

념으로 전면에 내세우고 있는 김일성-김정일주의는 새로운 사상이 아니라 주체사상과 선군사상의 또 다른 표현에 불과하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주체사상이 곧 공산주의사회 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김정은 시대에도 군사목표는 ‘한반도 전역 점령’에 있는 것이다. 즉 북한체제의 최상위 규범이라 할 수 있는 교시적 성격의 김일성·김정일의 유훈, 그리고 조선노동당 규약상에 ‘한반도 적화통일’은 포기할 수 없는 가치체계로 간주되고 있는 것이다.<sup>53)</sup>

## 2) 군사전략개념

북한은 김정은 시대에도 그들의 군사목표가 한반도 전역 점령으로 불변이기 때문에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군사전략개념 또한 ‘공세전략’을 추구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에는 남북관계가 북한의 추가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시험발사,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등으로 긴장관계를 유지하다가 2018년에는 화해분위기로 급반전 되었다. 2019년 7월 현재까지 각각 3차례에 걸쳐 진행된 남북정상회담과 미북정상회담의 개최로 인해 한미북(韓美北)간 한반도 평화정착과 북핵폐기에 대한 논의가 어느 정도 진전을 보이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핵을 쉽게 포기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제2차 미북정상회담이 비핵화 조치에 대한 미북양국의 입장차이로 인해 합의문 없이 끝났다. 제3차 미북정상회담도 별다른 성과없이 끝났다. 북한은 이미 2012년 개정된 사회주의헌법에 ‘핵보유국’을 명시해 놓았으며, 사회주의 강국 건설 완성을 위한 ‘핵·경제 병진노선’을 선택하였다.<sup>54)</sup> 북한이 군사전략개념을 수세-공세 또는 수세적으로 변경

52) 『2016 조선로동당 규약』 .

53) 김태현, 앞의 논문, 146쪽.

54) 『201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

시키기 위해서는 노동당규약이나 사회주의헌법에 해당내용을 반영시켜야 하는데 현재까지 어느 문건에서도 그러한 사실을 발견할 수가 없다.

김정은이 2017년 1월 1일 방송을 통해 육성으로 발표한 신년사에서 핵무력을 중추로 선제공격능력을 강화해 나갈 것을 다음과 같이 역설하였다.<sup>55)</sup>

우리의 첫 수소탄(수소폭탄) 시험과 각이한 공격수단들의 시험발사, 핵탄두 폭발시험이 성공적으로 진행되었으며, 첨단무장장비 연구개발 사업이 활발해지고 대륙간 탄도로켓 시험발사 준비사업이 마감단계에 이른 것을 비롯하여 국방력 강화를 위한 경이적인 사변들이 다계단으로, 연발적으로 이룩됨으로써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수호하고 사회주의강국 건설위업을 승리적으로 전진시켜나갈 수 있는 위력한 군사적 담보가 마련되었습니다. …… 우리는 핵무력을 중추로 하는 자위적 국방력과 선제공격 능력을 계속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김정은이 2017년 신년사를 통해 북한의 군사전략개념이 공세전략이라는 사실을 직접 육성으로 증언하였으며, 이는 김정은이 핵을 3대 세습체제의 미래에 대한 보장수단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의 남북관계는 국내·외 정치적 상황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특성을 보여왔다. 따라서 현재의 남북관계 진전을 긍정적 시각으로만 해석하기 보다는 북한의 숨겨진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여 대응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 3) 군사자원

북한은 김일성 시대인 1950년대부터 핵무기를 개발하기 시작하였다. 한국전쟁 직후인 1955년 4월 과학원 제2차 총회에서 원자 및 핵물리연구소 설치를 결정한 것을 기점으로 소련의 지원을 받아 본

55) 『조선중앙방송』, 2017년 1월 1일.

격적인 핵개발에 뛰어들었다.<sup>56)</sup> 김일성 시대인 1993년 3월에는 핵 확산금지조약(NPT: 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에서 탈퇴함으로써 제1차 북핵위기를 초래하였으며, 김정일 시대인 2002년 10월에는 미국 협상단이 평양 방문시에 고농축우라늄에 의한 핵개발 프로그램 추진을 시인하면서 제2차 북핵위기를 맞았다. 그로부터 4년 뒤인 2006년 10월 9일에 북한이 전격적으로 제1차 핵실험을 감행한 것을 시작으로 2017년 9월 3일에 마지막으로 실시한 제6차 핵실험까지 김정일 시대에 2회, 김정은 시대에 4회의 핵실험을 실시함으로써 무기화 단계에 도달한 것이 확실시 되고 있다. 북한은 핵실험과 병행하여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도 2017년 5월 14일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 Intermediate Range Ballistic Missile) 발사를 시작으로 2019년 5월 9일 북한판 이스칸데르로 추정되는 단거리미사일, 7월 31일 탄도미사일, 8월 2일 단거리 발사체를 비롯하여 계속해서 미사일 발사실험을 실시해 오고 있다.<sup>57)</sup> 국제사회의 핵전문가 그룹에서는 북한이 적게는 8기에서 많게는 20기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2020년까지 핵무기를 최소한 20기에서 많게는 100기까지 보유하게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sup>58)</sup>

김정은은 2018년 4월 20일에 열린 당 중앙위원회 제7기 3차 전

56) 문순보, 「북핵문제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한계와 대안」, 『국가전략』 제16권 2호, 서울: 세종연구소, 2010, 98-99쪽.

57) 신인호, 「합참 “北, 2일 새벽 단거리발사체 2회 발사” 발표(2보)」, 『국방일보』, 2019년 8월 2일, <http://kookbang.dema.mil.kr/newsWeb/20190802/3/BBSMSTR000000010022/view.do>(검색일: 2019년 8월 3일).

58) Martin Armstrong, “The Countries Holding The World's Nuclear Arsenal,” Statista, The Statistics Portal, Mar 2, 2018, <https://www.statista.com/chart/8301/the-countries-holding-the-worlds-nuclear-arsenal>(검색일: 2019년 6월 15일); Dakota L. Wood, *2017 INDEX OF U.S. Military Strength*(Washington D.C.: The Heritage Foundation, 2016), p.231.; 김의철, 「헤리티지 재단 ‘北 핵무기 8개 보유’」, 『KBS 뉴스』, 2016년 11월 17일.; 북한의 핵무기 보유수를 예측하는 기관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다.

원회의에서 “핵개발의 전 공정이 과학적, 순차적으로 다 진행되었고 운반타격수단(미사일)들의 개발사업 역시 과학적으로 진행되어 핵무기 병기화 완결이 검증된 조건”이라며 “이제는 우리에게 어떤 핵실험과 중장거리, 대륙간탄도로켓(미사일) 시험발사도 필요없게 되었다.”고 말했다.<sup>59)</sup> 아울러 국제사회를 향해서는 핵군축에 나서자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것은 핵폐기를 전제로 한 진정성 있는 제안이라기보다는 북한이 개발한 핵무기를 국제사회로부터 ‘공인’을 받기 위한 고도의 정치적 목적을 띤 수사(修辭)라고 판단된다. 북한은 이제 명실공히 핵무기와 미사일을 결합해서 안정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핵클럽(nuclear club) 반열에 오르게 된 것이다.

북한이 김일성 시대에는 경제적 우위와 소련의 지원에 힘입어 한국을 능가하는 막강한 군사력을 보유하고 한국전쟁까지 도발한 경험이 있다. 김정일 시대에는 1995년부터 2000년까지 지속된 전대미문(前代未聞)의 고난의 행군이라는 경제난으로 인해 군사력이 한국에 역전당하는 뼈아픈 경험을 하였다.<sup>60)</sup> 한국과의 경제력 격차가 국내총생산(GDP: Gross Domestic Product) 기준 48배가 넘기 때문에 국방비의 비율을 어느 정도 높이더라도 재래식 무기의 열세를 만회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다.<sup>61)</sup> 그런데 김정은 시대에 비로소 절대무기<sup>62)</sup>인 핵무기를 완성함으로써 재래식 무기의 열세를 한방에 만회하는 결과를 만들어 냈다. 따라서 북한이 개발에 성공한 핵무기는 그들의 군사목표인 한반도 전역을 점령하고 공산화 통일을 이루기 위해 공세전략의 군사전략개념을 구현시켜 줄 핵심수단이 될 것이다.

59) 『조선중앙방송』, 2018년 4월 21일.

60) GFP 홈페이지, <https://www.globalfirepower.com>(검색일: 2019년 6월 5일).

61) The U.S. Central Intelligence Agency, *The CIA World Factbook 2018-2019* (New York: Skyhorse Publishing, 2018), pp.2078-2115.

62) 파괴력에 있어 최대의 위력을 보유하는 이론상의 무기로서 일반적으로 원자폭탄이나 수소폭탄을 지칭한다.

## 4. 북한의 군사전략에 대한 평가

### 가. 군사목표의 불변성

북한에는 사회주의 헌법보다도 우위에서 북한사회가 어느 방향으로 지향해 나갈 것인가를 밝히는 북한노동당의 지도지침인 노동당 규약이 있다. 2016년 6월 제7차 당대회에서 개정된 조선노동당 규약 전문에는 “조선로동당의 최종목적은 온 사회를 김일성-김정일주의화하여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는데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는 북한정권 수립이후 현재까지 국가목표가 한반도의 공산화 → 한반도의 주체사상화와 공산화 → 한반도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로 변화되어 왔지만 용어만 바뀌었을 뿐 ‘한반도의 공산화’ 의지에는 변함이 없음을 대내외에 천명하고 있는 것이다.<sup>63)</sup> 북한에서 최상위 규범체계인 교시적 성격의 김일성·김정일의 유훈과 조선노동당 규약에 직·간접적으로 명시된 바와 같이 한반도의 공산화는 포기할 수 없는 최고의 가치체계로 굳건히 자리매김하고 있다. 군사목표는 군사능력 및 자원을 투입하여 수행해야 할 특정임무 또는 과업으로 국가목표의 달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선정되어야 한다. 북한의 군사목표는 이처럼 한반도의 공산화라는 국가목표의 달성에 기여해야 하는 당위성 때문에 ‘한반도 전역 점령’으로 선택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북한은 김일성 시대부터 지금까지 김일성의 영도 아래 전 한반도의 공산화, 전 민족해방의 완성이라는 목표에 모든 정책을 맞추어 놓았기 때문에 이 목표의 수정 또는 포기는 영원한 수령인 김일성의 지위뿐만 아니라 김정은 정권 자체까지도 위협하게 될 것이다.

63) 『1980 조선로동당 규약』 ; 『2010 조선로동당 규약』 ; 『2016 조선로동당 규약』 ; 통일교육원, 앞의 책, 135-138쪽.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북한의 대남군사정책에는 근본적인 변화가 있을 수 없고 기대하기도 어려울 것이다.<sup>64)</sup>

결국 북한은 김정은 시대에도 ‘한반도의 공산화’라는 군사목표는 수정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한국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3차례의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보여준 남북 화해분위기 연출도 북한의 전형적인 위장평화공세이자 유화전술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한다. 아울러 이러한 북한의 숨은 의도를 정확히 파악해서 대응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 나. 군사전략개념의 공세성

군사전략개념은 국가전략이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현실적이며 구체적인 군사목표를 가장 효과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의 구상이다. 북한은 국가목표인 ‘한반도의 공산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군사목표를 ‘한반도 전역 점령’으로 선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군사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군사행동 방안으로서의 군사전략개념을 ‘공세전략’으로 선택하였으며, 이는 김일성 시대부터 김정일 시대를 거치는 동안에도 일체의 변경이나 수정 없이 김정은 시대로 전해져 내려오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북한이 군사전략개념을 공세전략으로 선정한 사실은 김일성 시대부터 현재까지 멈추지 않고 계속 도발을 자행하는 것으로도 알 수 있다. 1950년대 초 소규모 간첩을 침투시킨 것을 시작으로 군함·항공기에 대한 공격까지도 서슴지 않던 북한이 급기야는 절대무기인 핵무기까지 개발하는 등 북한의 도발은 끊임없이 진화해 오고 있다.

북한이 공세적인 군사전략개념으로 방향을 잡을 수밖에 없는 배경은 김일성의 군사경력, 북한의 후견국인 중국과 소련의 군사사상,

64) 백종천, 앞의 논문, 67-68쪽.

한국전쟁과 현대전의 교훈 등 뿌리깊은 연원에 있다. 따라서 쉽게 바뀔 수 있는 소지가 아니다. 2017년 신년사에서 김정은이 직접 육성으로 북한의 군사전략개념이 공세전략이라는 사실을 입증해 주기도 하였다.

군사교리적인 측면에서도 방어보다는 공격이 주는 이점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식견있는 군사전략가라면 이를 절대 포기할 수 없을 것이다. 더구나 북한의 군사목표인 한반도 전역을 점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공세적인 작전을 통해서만 군사목표의 달성이 가능하다. 북한의 군사전략은 많은 상황변화에도 불구하고 군사적 공세주의의 본질적 성향은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sup>65)</sup>

이상과 같은 이유로 향후에도 북한이 국가목표인 한반도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 즉 한반도의 공산화를 포기하고 대신에 평화지향적인 국가목표로 변경시켜 군사전략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 한 공세전략이라는 군사전략개념은 계속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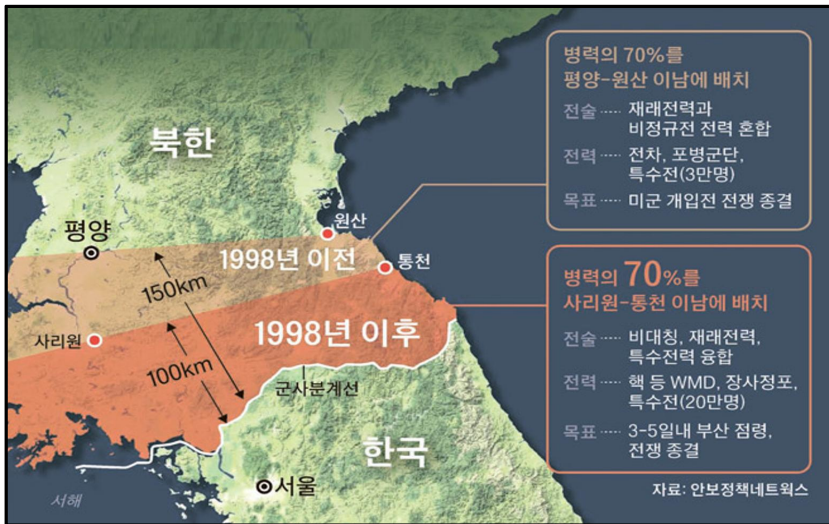
#### 다. 군사자원의 공세성과 절대성

군사자원은 군사목표를 달성하는데 있어서 직·간접적으로 가용할 수 있는 제반 인원 및 물자를 말한다. 북한이 군사목표인 ‘한반도 전역 점령’을 달성하기 위한 군사전략개념으로 선택한 ‘공세전략’의 성공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군사적 능력을 결정하는 요소인 군사자원이 군사전략개념을 충실히 뒷받침할 수 있어야 한다. 군사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군사전략개념과 이를 구현하기 위한 군사자원은 상호 보완적인 관계로써 군사전략개념은 군사자원이 가용한 범위 내에서 구상되어야 하며, 군사자원은 군사전략개념을 구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전력이 준비되어야 한다.

65) 김태현, 앞의 논문, 164쪽.

그런데 북한군의 편성과 장비는 공격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북한은 강한 화력과 기동력을 갖추기 위해 전투장비를 개량해 오고 있다. 아울러 특수부대 병력도 2000년도에 10만명 수준이었으나 2010년도에는 20만명 규모까지 증가시켜 지상군 정규병력의 약 20%를 차지하고 있다. 이처럼 기형적으로 많은 특수부대와 기갑화경량화기동화된 부대편성에 역점을 둔다는 것은 정규전 및 비정규전 부대의 배합을 통해 항상 공세위주의 군사역량을 갖추겠다는 북한 군사정책의 기본방향을 말해준다고 하겠다.<sup>66)</sup>

<그림 2> 북한군의 진진배치 현황



※ 출처 : 『중앙일보』, 2013년 11월 14일, 8면.

국방부에서도 북한 지상군은 병력의 약 70%를 평양~원산선 이남에 배치하여 상시 기습공격을 감행할 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밝혔다.<sup>67)</sup> 2013년 국회 정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국방정보본부장은

66) 김기호, 앞의 논문, 37쪽.; 백중천, 앞의 논문, 66쪽.

67) 국방부, 앞의 책, 22쪽.

<그림 1>에 제시된 바와 같이 “북한군이 휴전선에서 100km이내(황해도 사리원~강원도 통천 라인 이남)에 북한 병력의 70%, 화력의 80%를 전진배치하고 있다고 말했다. 과거 휴전선에서 150km이내(평양~원산 라인 이남)에 병력의 70%를 배치했던 것과 비교하면 공세적으로 바뀌었다는 의미다.”라고 진술하였다.<sup>68)</sup>

북한의 군사자원에 대해 특히 주목할 점은 절대무기인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같은 대량살상 전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북한이 아직은 국제사회로부터 핵보유를 정식으로 인정받지는 못했지만 과거 핵보유국들이 핵무기를 완성하는데 필요한 핵실험 횟수가 평균 6회라는 분석을 감안하면 그동안 북한이 실시한 총 6차례의 핵실험과 80차례가 넘는 미사일 시험발사는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기정사실화 하기에 충분하다.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기 전까지는 재래식 군사력 수준은 수적인 면에서는 북한군이 앞서지만 질적인 면을 고려하면 현대화된 무기체계 기반의 한국군이 우위에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sup>69)</sup> 그런데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한 순간부터 남북한의 군사력 수준을 논의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게 되었다. 그것은 핵무기가 갖는 절대성 때문이다.

결국 북한은 그들이 선택한 공세전략이라는 군사전략개념을 구현하기 위하여 공세적인 군사력을 확충해 오고 있다.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함으로써 군사자원의 절대성까지 갖추게 되었고, 한국으로서는 감당하기 힘든 군사적 상황에 직면하게 된 것이다.

68) 장세정, 「북 병력 70만 명 전진배치 ... 3~5일 내 부산 점령 전략」, 『중앙일보』, 2013년 11월 14일, 8면.

69) 국방부, 앞의 책, 244쪽.; GFP 홈페이지, 앞의 자료 참조.

## 5. 결 론 : 한국의 대응방안

군사전략은 국가이익과 국가목표의 달성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군사적 수단을 조성 및 운용하기 위한 군사계획과 행동방책이다. 한 국가의 군사전략 선택의 문제는 사활적 이익(vital interest), 즉 국가의 생존과 직결된다. 군사전략은 “무엇을 위해 어떤 수단을 어떻게 운용할 것인가?” 하는 군사목표, 군사전략개념, 군사자원 등 3요소로 구성되며, 이 연구의 논의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의 군사목표는 ‘한반도 전역 점령’으로 판단된다. 북한의 최상위 문서인 조선노동당 규약에 국가목표가 한반도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 즉 한반도의 공산화를 공식적으로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군사목표가 국가목표를 군사적으로 뒷받침해야 하는 논리구조상 한반도 전역 점령으로 선택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다시 말해 한반도 전역을 군사적으로 점령해야 비로소 한반도의 공산화가 달성될 수 있는 것이다.

둘째, 북한의 군사전략개념은 ‘공세전략’으로 평가된다. 군사전략개념은 군사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가장 가능성 있는 군사행동 방책이다. 북한이 한반도 전역 점령이라는 군사목표를 선정한 이상 군사전략개념은 공세전략으로 선택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전쟁의 원리상 공격을 하지 않고는 상대방의 영토를 점령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분단 이래 현재까지 북한은 끊임없는 대남도발을 통해 공세성을 증명해 왔다.

셋째, 북한의 군사자원은 군사전략개념인 공세전략을 차질없이 구현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다. 김일성 시대에는 소련제 무기로 무장하고 한국전쟁을 일으켰으며 이후 전투기·미사일·유도탄경비정 등 공격작전에 유리한 무기를 도입하고 재래식 무기와 화생무기의 자체생산을 추진하였다. 김정일 시대에는 고난의 행군으로 침체된

경제상황에도 불구하고 선군정치를 표방하면서 2차례의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하는 등 공세전략을 구현시켜 줄 무기체계의 개발에 매진하였다. 김정은 시대에는 4차례의 추가 핵실험과 80여회의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강행하여 핵무기를 완성한 것으로 평가된다. 김일성 시대부터 개발하기 시작한 핵무기가 김정은 시대에 완성을 보았으며, 김정은은 핵무기를 공세전략의 성공을 보장하는 만능열쇠(master key)로 활용하고자 할 것이다.

북한은 김일성 시대부터 김정일 시대를 거쳐 김정은 시대에 이르기까지 비정상적이고 불안한 3대 부자세습 국가체제를 유지하면서도 ‘한반도 전역 점령’이라는 군사목표와 ‘공세전략’이라는 군사전략 개념을 채택하여 일체의 변경없이 일관되게 유지해 오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그 뿐만 아니라 군사목표와 군사전략개념을 구현하기 위한 군사자원도 북한의 특수한 정치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여 공세전략을 성공시킬 수 있는 무기체계를 구축해 오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한국은 북한의 군사전략에 내포된 의미를 정확히 간파하고 이에 대비하기 위한 통합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북한이 개발한 핵무기를 조기에 파괴 또는 무력화시키지 못한다면 정치적·군사적으로 매우 불리한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한국은 최우선적으로 북한의 핵무기에 초점을 맞추어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첫째, 한국은 군사전략개념을 공세전략으로 선택하고 이를 구현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대한민국 헌법 제4조에는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그리고 제5조 1항에는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고 명시되어 있다.<sup>70)</sup> 현재까지는 한국군이 이를 소극적으로 해석해서

70) 『대한민국 헌법(제10호)』 .

수세적인 입장을 고집해 왔다. 유엔헌장 제51조는 선제공격을 자위권 차원에서 일정한 요건만 갖추면 적법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전쟁에서 공세가 갖는 이점은 너무도 크기 때문에 이를 포기한다면 승리하기는 매우 어렵다. 특히 핵무기로 무장한 북한에게 초전일격(初戰一擊)을 허용한다면 그 피해는 상상하기조차 힘들 뿐만 아니라 전세를 역전시킬 방안을 찾기가 크게 제한될 것이다. 따라서 헌법에 대한 적극적인 해석을 통해 공세전략을 구현해 나갈 수 있는 준비를 갖추어야 한다.

둘째, 북한의 군사도발에 직접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대북 억제 전력을 확보해야 한다. 북한의 공격징후를 사전에 포착할 수 있는 첨단정보자산과 북한의 핵무기와 핵시설을 타격할 수 있는 공격무기체계를 갖추는 것이다. 이를 위해 선제공격형방위시스템인 킬체인(Kill Chain)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인 KAMD(Korea Air and Missile Defense) 그리고 대량응징보복체계인 KMPR(Korea Massive Punishment Retaliation) 등 ‘한국형 3축 체계’를 최단기간 내에 구축해야 한다. 또한 “핵은 오직 핵으로써만 대응할 수 있다.”는 원칙은 한국도 핵무장 수준의 강력한 핵 억제수단을 확보해야만 하는 정당성을 부여한다. 한국의 핵무장 선택지로는 미군의 전술핵무기 재배치 요구, 핵 공유(nuclear sharing) 권한의 획득, 핵무장 선택권(nuclear option)의 추구, 핵확산금지조약(NPT: 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 탈퇴 후 자체 핵무장을 추진하는 방안 등이 있으며 국제사회의 반발과 한국경제에 미칠 파장 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추진해야 할 것이다.<sup>71)</sup>

셋째, 한미동맹을 공고히 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미국의 핵우산(nuclear umbrella) 정책, 즉 미국의 한국에 대한 확장적 전쟁억지

71) 하대성, 「북한 핵무장에 대비한 대한민국 핵억제전략 연구: 핵보유 국가들의 핵무장 사례를 중심으로」, 『대한정치학회보』 제24집 3호(2016년 8월), 103-105쪽.

(extended deterrence) 정책의 작동시스템을 강화시켜 북한의 핵 위협을 억제해야 할 것이다.<sup>72)</sup> 한미동맹은 지급보증이 가장 확실한 안보보험이다. 국가이익과 힘의 논리가 작동하는 약육강식의 국제정치체제하에서 “타국을 도와주면서도 영토욕심을 부리지 않는 국가는 세계에서 미국이 유일하다.”는 어느 정치학자의 언급은 한국에 실질적인 교훈을 준다. 국제질서가 미국 주도하에 유지되고 있는 국제정치의 현실을 부정해서는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용미(用美)의 지혜를 발휘할 때이다.

넷째, 국민들에게 북한 핵무기의 실체에 대해 정확히 알리는 노력과 함께 북한의 핵공격에 대비한 방어훈련을 실시하고 방호시설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연합군이 일본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핵폭탄을 투하함으로써 종전(終戰)이 이루어졌던 역사적 교훈이 지금은 오히려 트라우마(trauma)로 작용하여 핵무기가 폭발하면 무조건 다 죽는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따라서 핵무기의 특성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해야 한다. 한국은 북한의 핵무기 공격을 방어할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고 대피시설에서 핵공격시 행동요령을 준수한다면 생존할 수 있다는 교육과 홍보가 필요하다.

다섯째, 북한의 비핵화 실현을 위한 핵폐기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전제로 북한정권을 압박과 회유하는 대북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북한 핵무기의 폐기에 목표를 두고 이에 집중하여 북한정권의 통치자금 창구를 차단하는 압박정책을 미국 등 국제사회와 공조하여 일관되게 추진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북한과 동맹관계를 맺고 있으면서 교역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중국의 동참을 이끌어내지 못함으로써 북한의 핵무장저지에 실패한 경험과 과거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과 노무현 정부

72) 김우상, 『신한국전략Ⅱ : 동아시아 국제관계』, 파주 : 나남, 2007, 168쪽.

의 대북포용정책의 유화정책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핵능력은 오히려 고도화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 왔다는 사실을 뼈아픈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 반면에 북한이 핵무기를 폐기하고 국제협약을 준수하면서 개혁개방으로 나온다면 북한에 경제적 지원과 사회간접자본 확충 등을 지원하여 지속적인 발전을 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유인책도 함께 추진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원칙하에 문재인 정부가 남북정상회담에서 북한과 합의한 4·27판문점선언의 이행 시에도 북한이 핵폐기를 위해 취하는 실질적인 조치에 상응하여 한국의 추진속도를 조절해 나가는 지혜가 필요하다.

(원고투고일 : 2019. 7. 5, 심사수정일 : 2019. 8. 5, 게재확정일 : 2019. 8. 9)

주제어 : 군사전략, 공세전략, 핵보유국, 주체사상, 김일성-김정일  
주의

### <참고 문헌>

- 『1946 조선로동당 강령』 .  
『1946 조선로동당 규약』 .  
『1948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강』 .  
『1956 조선로동당 규약』 .  
『1970 조선로동당 규약』 .  
『1980 조선로동당 규약』 .  
『2009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  
『2010 조선로동당 규약』 .  
『201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  
『2016 조선로동당 규약』 .
- 국방대학교, 『안보관계용어집』, 국방대학교, 2010.  
국방대학원, 『군사전략(이론과 적용)』, 국방대학원, 1984.  
국방대학원, 『안전보장이론』, 국방대학원, 1991.  
국방부, 『2018 국방백서』, 국방부, 2018.  
권양주, 『북한 군사 이해』, 서울 : 한국국방연구원, 2010.  
극동문제연구소, 『북한전서』 중권, 서울 : 극동문제연구소, 1974.  
김기호, 「김정일 최고사령관 시기 군사전략의 변화」, 『국방연구』 제57권 제2호,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2014, UCI : G704-001669.2014.57.2.004  
김열수김경규, 「남북한 군사전략 비교와 함의」, 『신아세아』 제22권 2호, 신아시아연구소, 2015, UCI : G704-000851.2015.22.2.005  
김우상, 『신한국책략Ⅱ : 동아시아 국제관계』, 파주 : 나남, 2007.  
김태현, 「북한의 공세적 군사전략 : 지속과 변화」, 『국방정책연구』 제33권 1호, 한국국방연구원, 2017, UCI : G704-001646.2017.33.1.005  
김현기, 「북한의 군사전략과 군사력」, 『전략논단』 제11호, 해병대전략연구소, 2010.  
남만권, 「핵무장 전후 북한의 대남 군사전략 비교」, 『군사학연구』 제5호, 대전대학교 군사연구원, 2007.

- 『대한민국 헌법(제10호)』 .
- 문순보, 「북핵문제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한계와 대안」, 『국가전략』 제 16권 2호, 서울 : 세종연구소, 2010.
- 박용환, 「북한의 선군시대 군사전략에 관한 연구 : '선군군사전략'의 형성」, 『국방정책연구』 제28권 1호, 한국국방연구원, 2012, UCI : G704-001646.2012.28.1.005
- 백종천, 「북한의 군사력과 군사전략」, 『공산권연구논총』 제2권 1호, 한국사회주의체제연구협의회, 1990.
- 사회과학원 철학연구소, 『철학사전』, 평양 : 사회과학출판사, 1985.
- 서유석, 「북한의 군사정책 및 군사전략변화와 서해긴장상태 전망」, 통일부 용역 최종보고서, 2010.
- 와다 하루끼(和田春樹) 지음, 이종석 옮김, 『김일성과 만주항일전쟁』, 서울 : 창작과비평사, 1992.
- 육군본부, 『한국군사사상』, 육군본부, 1992.
- 윤종현, 「김일성의 군사사상」, 『북한군사론』, 서울 : 북한연구소, 1978.
- 이근욱, 「쿠바 미사일 위기 : 냉전 기간 가장 위험한 순간」, 서울 : 서강대학교출판부, 2013.
- 이승열, 「조선노동당 제7차 대회의 내용과 특징」, 『이슈와 논점』, 국회입법조사처, 2016.
- 이영민, 『군사전략』, 서울 : 송산출판사, 1991.
- 장명순, 『북한군사연구』, 서울 : 팔복원, 1999.
- 전호환, 「북한 핵무기 보유시 군사전략 변화 가능성과 전망」, 『군사논단』 제52호, 한국군사학회, 2007.
- 정보사령부, 『북한군 군사사상』, 정보사령부, 2007.
- 지효근, 「북한의 군사전략과 무기체계 변화」, 『동서연구』 제18권 2호, 동서문제연구원, 2006.
- 철학사전 편찬위원회, 『철학사전』, 서울 : 도서출판 중원문화, 1987.
- 최 영, 「북한의 군사전략」, 『북한군사론』, 서울 : 북한연구소, 1978.
- 최 영, 「북한정치권력의 변천과정」, 『북한』, 서울 : 북한연구소, 1972년 8월호.

- 최철웅·김양선, 『위대한 주체사상총서』 제5권, 평양 : 사회과학출판사, 1985.
- 통일교육원, 『북한지식사전』, 통일교육원, 2016.
- 하대성, 「북한 핵무장에 대비한 대한민국 핵억제전략 연구 : 핵보유 국가들의 핵무장 사례를 중심으로」, 『대한정치학회보』 제24집 3호, 2016년 8월, UCI : G704-001325.2016.24.3.002
- 한국국방연구원, 『2016 동북아 군사력과 전략동향』, 서울 : 한국국방연구원, 2016.
- 허 옥, 『세계철학대사전』, 서울 : 성균서관, 1977.
- B. H. Liddell Hart, *Strategy: The Indirect Approach*, New York: Praeger Pub., 1975.
- Colin S. Gray, *Modern Strategy*,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99.
- Dakota L. Wood, *2017 INDEX OF U.S. Military Strength*, Washington D.C.: The Heritage Foundation, 2016.
- JCS Pub, *Dictionary and Associated Terms*, Washington D.C.: U.S. Department of Defense, I, 1979.
- Jeffrey Record, “Revising U.S. Military Strategy: Tailoring Ends and Means,” George Edward Thibault, ed., *Dimensions of Military Strategy*, Washington D.C.: NDU Press, 1987.
- John Garnett, “Strategic Studies and It’s Assumption,” in John Baylis, et. al (eds)., *Contemporary Strategy and Policies*, New York Holms & Meier Pub., 1976.
- John P. Steward and Arther F. Lykke, Jr., *Military Strategy: Theory and Application*, Carlisle Barracks, PA: U.S. Army War College, 1982.
- Joint Doctrine Note 1-18, *Strategy*, Washington D.C.: U.S. Department of Defense, 2018.
- Julian Lider, *Military Theory: Concept, Structure, Problems*, Aldershot, England: Gower Pub., 1983.

- Robert E. Osgood, *The Entangling Alliance*,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62.
- The U.S. Central Intelligence Agency, *The CIA World Factbook 2018-2019*, New York: Skyhorse Publishing, 2018.
- 이치카와 마사키(市川正明), 「中ソ對立と北傀の軍事關係」, 『中ソ對立とアジア諸國』 上卷, 東京: 日本國際問題研究所, 1969.
- 김의철, 「헤리티지 재단 ‘北 핵무기 8개 보유’」, 『KBS 뉴스』, 2016년 11월 17일.
- 『로동신문』, 1999년 6월 16일.
- 『로동신문』, 2011년 1월 1일.
- 신인호, 「합참 “北, 2일 새벽 단거리발사체 2회 발사” 발표(2보)」, 『국방일보』, 2019년 8월 2일, [http://kookbang.dema.mil.kr/newsWeb/2019\\_0802/3/BBSMSTR\\_000000010022/view.do](http://kookbang.dema.mil.kr/newsWeb/2019_0802/3/BBSMSTR_000000010022/view.do)(검색일: 2019년 8월 3일).
- 장세정, 「북 병력 70만 명 전진배치 ... 3~5일 내 부산 점령 전략」, 『중앙일보』, 2013년 11월 14일, 8면.
- 장용훈, 「북매체, ‘후계자는 김정은’ 사실상 확인」, 『연합뉴스』, 2011년 6월 27일.
- 『조선중앙방송』, 2017년 1월 1일.
- 『조선중앙방송』, 2018년 4월 21일.
- GFP 홈페이지, <https://www.globalfirepower.com>.
- Martin Armstrong, “The Countries Holding The World's Nuclear Arsenal,” Statista. The Statistics Portal. Mar 2, 2018. <https://www.statista.com/chart/8301/the-countries-holding-the-worlds-nuclear-arsenal>(검색일: 2019년 6월 15일).

<Abstract>

## A Historical Review of North Korea's Military Strategy

Lee, Sang-taek

Military strategy is a sort of military action plan and a way of action for the creation and operation of military means to effectively support the achievement of national interests and national goals. Therefore, the impact on South Korea's security is enormous, depending on the military strategy what the North Korea chooses. This military strategy consists of three elements such as military objectives, military strategic concepts, and military resources.

North Korea's consistent military objectives has been to communize the Korean Peninsula since the government was established on the 9<sup>th</sup> of September in 1948. To achieve this military objectives, the concept of military strategy adopted by North Korea is an offensive strategy. North Korea has continued to develop military resources to realize the concept of military strategy called offensive strategy, and is now believed to be in the final stage of developing nuclear weapons. South Korea should know exactly that the North Korea's military strategy lies in communizing the entire Korean Peninsula. It also calls for an integrated countermeasure to prepare for North Korea's military threats and strengthening South Korea's national security.

Key Words : Military Strategy, Offensive Strategy, Nuclear Power, Juche Ideology, Kim Il-Sung and Kim Jong Illism